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학교수, 한국박물관학회장

2022 제주비엔날레의 역설적 성취

제3회 제주비엔날레가 이달 12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 아래 16개국 55명(팀)이 참여해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가파도에 이르는 도내 6개 장소에서 165점의 작품을 펼쳐 놓았다. 시의성 있는 주제와 예술 감독의 전시기획 역량에 힘입어 성공적인 비엔날레로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성공은 그동안 제주비엔날레의 파행과 부실을 극복하려는 도민들의 기대치를 염두에 두고 내린 역설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역

설의 요지는 제주비엔날레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지속에 힘을 보태 주었다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 제주비엔날레의 파행적 운영은 독립된 전담 조직이 없이 제주도립미술관이 주축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비엔날레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무리수를 둔 것이다. 미술관과 화랑의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 없듯이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통합 운영은 일부 미술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으나 건강한 미술 문화를 세우는데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제주비엔날레가 시작부터 뒤틀리고 빠져버린 것은 '말 안장(鞍裝) 올리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제주도는 1995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비엔날레의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 원년을 계기로 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며 프레비엔날레의 이름을 달았으나 같은 해에 출범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밀려 23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비엔날레 천국' 시대로 접어든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장의 발의로 개최되었으나 소송과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후 2020년 5월에 계획되었던 2회 행사 역시 제주도립미술관장과 예술감독의 불협화음으로 무산되었다. 5년 만에 열린 제3회 비엔날레는 2회 없는 3회라는 점에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계속해 끌어안아야 한다. 이제 파행의 시간을 반성할 때가 되었다. 제3회 제주비엔날레의 역설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 자체가 아직도 조직과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비엔날레라는 옹광로를 끌어안으며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미술관 주체가 비엔날레의 특수성과 경제적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오판이었다는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월권으로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 받았다'는 한 예술감독의 항변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제3회 제주비엔날레는 정석을 두었다. 비엔날레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주도립미술관과 분리된 독립 조직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립미술관의 법률적 기능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열린마당

청렴·성품·행실 깨끗, 재물 탐하지 않는다



김은연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고 말하고 싶다. 조선시대 정약옹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렴은 공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 그 일을 함에 있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꼭 계산적인 생각과 논리로 생각해서 이건 청렴이야 정의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습관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렴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정하고 닦아내고자 노력하는 청렴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전차민법의 실천 가능한 콘텐츠가 무수히 주변에 나타나고 보여질 것이다. 개개인이 이웃들이 함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살펴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 아닐까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경찰국 반대 총경 문책성 인사 논란

오 지사, 확장 검토 진행 언급 "인사 보복 전쟁" 등 비판
○...오영환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제시된 제주국제공항 확장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해 보겠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
오 지사는 최근 열린 도내 시민단체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에서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용역을 재차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내부 검토를 진행해 보겠다"고 답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당시 현장 분위기로는 오 지사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주국제공항 확장 이용 가능성 용역 실시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인사 보복 전쟁” 등 비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던 제주 경찰청 소속 총경 2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이뤄져 논란.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총경급 인사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회의에 참석한 김영욱 제주청 수사과장이 현 보직을 맡은지 반년 만에 경찰차량 등을 관리하는 지원 부서인 정보화장비과장으로 전보된 데 이어,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형 총경이 경정급이 갈 수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이동.
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른지역 총경들도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 내부방에는 '유치찬란하고 소인배적인 행태', '인사 보복 전쟁' 등의 비판이 봇물. 이상민기자

사설

제주 숙박업 경쟁력 높이는 특별단속을

여행지에서 숙박 시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공간이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여행의 만족도를 좌우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제주관광공사가 내놓은 '제주도 방문관광객 실태 조사'를 보면 내국인들의 제주 여행 필요 정보 순위에서 숙박 시설을 꼽은 비율이 2020년 18.2%에서 2021년 22.7%로 같은 기간 다른 항목과 비교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생활형숙박, 농어촌민박의 꾸준한 증가로 숙박업 분야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관광 도시' 제주에서 불법 숙박 문제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주지역의 불법 숙박 적발 건수가 단독 주택 224건 등 총 457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숙박 사이트 활성화와 개별 여행객 선호도에 맞춰 독립형 숙박업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불법 영업도

성행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단과 제주시·서귀포시가 다음달 중순까지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불법 숙박과 합법 임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종 영업 행위를 하거나 한 달 미만 단기 계약으로 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했다. 해안도로, 관광지, 핫 플레이스 등을 끼고 '전망 좋은 방'을 내세운 무등록, 미신고 영업장은 시설 이용자의 각종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 불법 숙박 특별단속이 제주 숙박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른 물가에 난방비까지 폭등 큰일이다

연초부터 물가 때문에 난리다. 서민은 말할나위 없고 농민과 자영업자 등 물가 상승으로 죽을 맛이다. 제주 농민들은 농산물 운송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료·농자재 가격을 비롯해 인건비에 물류비 등 오르지 않은게 없으니 오죽하겠는가. 게다가 전기·가스 요금이 급등하면서 서민가계는 물론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밝힌 '1월 제주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0% 올랐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5.5%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

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지난해 7월 13.8% 올라 사상 첫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에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전기료 29.5%, 도시가스가 28.6%, 상수도료가 3.9% 각각 올랐다.
물가가 진정되지 않아 걱정이 다. 서민들은 가뜰이나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울상짓고 있다. 농민들은 생산비가 계속 뛰면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게 없다고 토로한다. 소상공인들도 폭등한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물가에 가스비 인상이 났던 자영업자들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업주들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대책은 보이지 않아 큰일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봉영(제주시 농협·향년 7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3년 2월 6일

부인 **부용숙**
아들 **강동균**
동호 **동호**
며느리 **김혜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미소수신1호 - 3호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943, 2944, 2947, 3604-1
 - 면적: 29,222㎡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별 설비용량

발전소명	설비용량	허가신청자
미소수신1호	999.58kw	(주)미소에너지
미소수신2호	999.58kw	
미소수신3호	999.58kw	
합 계	2,998.74kw	

* 중공 시 모듈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개시예정일: 2024년 1월
* 한전 선로 연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3.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주)미소에너지 (연락처: 064-713-6406)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2023년 2월 13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서면작성하여 E-MAIL (misp88@naver.com) 또는 FAX (064)713-6406 제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응암동굴계 거문오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 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생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 1] 강정 해안도로 점 607평 (카페 A급 토지)
-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 높이 17m가능)
-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버다조망 건축가능)
-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생리 180평 (주택 건축가능)
-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새신금태양광발전소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봉리 232
 - 면적: 3,339㎡
-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소 설비용량: 343.36kw
 - * 중공 시 모듈용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개시예정일: 2024년 1월
 - * 한전 선로 연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간
- 발전사업허가 신청자: 오창철 (연락처: 064-713-6405)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기간: 2023년 2월 13일까지
 - 의견제출방법: 서면작성하여 E-MAIL (misp88@naver.com) 또는 FAX (064)713-6406 제출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택지, 상가 긴급매각

-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점
-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점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총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50,000원**

전화 010-7301-7737